

『놀이터는 내 거야』 독후 활동지



조세프 퀘플러 글, 그림 | 권이진 옮김
불광출판사 | 42쪽 | 초등1~2학년
우리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1

“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신비한 힘을 응원합니다.

”

활동 나의 놀이 공간 소개하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놀이 공간은 어디인가요? 조나와 레눅스가 그린 놀이터 지도를 참고하여 나의 놀이 공간 지도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즐겨 하는 가장 재밌는 놀이 한 가지를 소개해 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어떤 놀이를 하나요?)



내가 여기서 즐겨 하는 가장 재밌는 놀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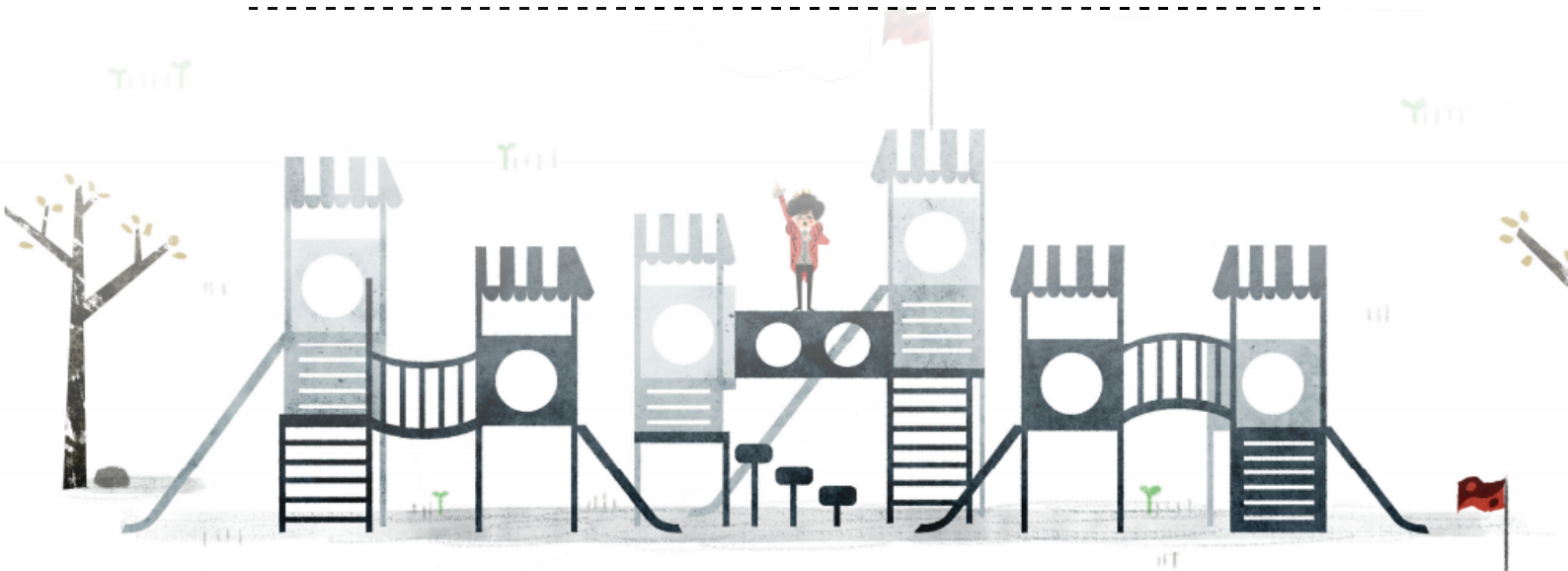
활동2 '내 거야!' 외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쁜 걸까요?
내 것을 남이 가지고 놀면 고장 나고 엉망이 될까 봐 두려워서,
또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친구들과 나누다가 내 것을 빼겼던 경험이 있을 수도, 다른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아요. '내 거야!'라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과,
그 마음이 만들어진 이유를 글로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혹시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조나와 레녹스의 마음을 짐작하여 써 봅시다.

'내 거야!'라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

그 마음이 만들어진 이유:



활동3

나누면 생기는 일

왕이 된 조나와 레녹스는 놀이터를 '정복'해요. 깃발을 꽂고 뭐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모두 차지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해요. 독점은 얼핏 좋은 것 같아요. 놀이터를 독점한 조나와 레녹스는 놀이 기구도 마음껏 타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 그런데, 그렇게 독점이 이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독점'하지 않고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사용할 때, 놀이터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오직 여러분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나 혼자서 소중히 간직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책 속의 놀이터처럼 친구들과 나누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 간식 상자, 내 아지트, 내 장난감, 내 그림책 등등이요.

지금까지 나 혼자 누리며 아무와도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두 배로 재밌고, 두 배로 행복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함께 하기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함께 하기 계획>

무엇을 함께 할까?: 작년에 새로 산 게임기

함께 하면 생길 수 있는 변화: 그동안 못 해 봤던 2인용 게임, 3인용 게임도

할 수 있다. 친구도 나랑 재밌게 놀았다면 다음에는 자신의 게임기를 가져와

다른 게임을 해 볼 수도 있다.

<함께 하기 계획>

무엇을 함께 할까? _____

함께 하면 생길 수 있는 변화: _____



활동4 사과 프로젝트

진심 어린 사과라면 통하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아주 정성 들여 사과해야 할 필요도 있죠.

조나와 레녹스는 그래서 '중요한 사과 프로젝트'를 세워 실행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친구가 떠나가거나 누군가가 크게 속상해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사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조나와 레녹스처럼 꼼꼼하게 계획한다면,
사과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 누구에게, 어떤 일로 사과하고 싶나요?

중요한 사과 프로젝트

()작성

해야 할 일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활동5 이야기 이어 쓰기



조나와 레녹스는 텅 빈 놀이터를 보고 왕이 되기를 포기했지요.
왕관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사과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밀턴 험프리 힐더브란드 3세'가 깃발을 꽂는 것 아니겠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있는 힌트를 읽고 여러분이 직접 책의 뒷이야기를 써 봅시다.

<힌트>

- 조나와 레녹스가 만든 '중요한 사과 프로젝트'에 '미래의 지배자 감시하기'가 있었어요.
- 두 왕의 지배를 한차례 겪어 본 친구들에게 지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 새로운 왕은 놀이터를 점령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